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 신통리 높은 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다. 이 암자에는 도술이 뛰어나 앞일을 훤히 내다 보는 심산부라는 대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암자는 너무 좁고 낡아서 다시 지으려고 했다. 어느날 도사는 산 아래의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내일부터 암자를 새로 짓는데 덕의 소를 하루씩만 빌려 주십시오."하고 청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명도 거절하지 않고 도사에게 소를 빌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도사는 너무도 감사하여 인사를 잊지 않고 "그럼, 내일 아침일찍 소를 가지러 소승이 오겠으니 새벽에 소를 배불리 먹여 길마를 지은후 마당에 매어 주십시오."라고 일러두고 가버렸다. 이튿날 새벽, 그 마을의 최서방은 도사의 말대로 소를 배불리 먹여 마당앞에 매어놓고 도사가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나절이 지나도 도사는 소를 데려가지 않았다. "분명히 아침 일찍이 소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얼거리며 또 한나절을 기다렸으나 저녁때가 되도록 소는 그대로 앞 마당에 매인 채 잠만자고 있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마을에는 어둠이 찾아들어 최서방은 도사를 기다리다 못해 소를 들여다 매느라고 소고삐를 풀고 자는 소를 깨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루종일 걸음 한번걸지 않았던 소 잔등에는 땀이 흥뻑 젖어있었고 소는 지쳐 있는 것이었다. 최서방이 이상한 마음으로 소잔등의 땀을 씻어주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 가려는데 도사가 나타났다. "소를 빌려 주셔서 고맙게 잘 씁니다."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아니 도사님! 소는 오늘 진종일 잠만 자고 있었는데 언제 데려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도사는 껄껄 웃었다. "소의 몸뚱아리를 쓴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빌어 쓴것이죠." 최서방은 무슨 뜻인지 잘알수 없었으나 소가 땀을 흘린 이유를 알것 같았다. 도사는 다른 집의 소도 이런 방법으로 빌어썼다. 그후 어느날이었다. 마을의 어린소년들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사가 나타났다. "애들아! 너희들에게 할말이 있다. 내일도 나무하러 오너라." "왜요?" "내일 이맘때쯤 이 곳에 어떤 스님이 한분 지나갈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일러 주는 것이었다. 어린 소년들은 도사의 말을 다소곳이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도사가 일러준 시간이 되니까 과연 스님 한 분이 등에 바랑을 매고 큰 갓을 쓰고 올라오고 있었다. "애들아! 저기 스님이 올라온다."하고 한 아이가 소리치므로 모두 그 쪽을 바라보며, "정말 저기 온다. 틀림없이 어제 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스님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소년들은 스님의 앞길을 막아서서 도사가 일러준대로 낫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네 이놈! 게 섰거라!" 별안간 습격을 당한 스님은 깜짝 놀랐으나 태연하게 "너희는 누구냐? 아무리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버릇없는 짓이 어디 있어?"하고 호통치니 아이들도 시침을 떼고, "넌 중으로 가장하고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놈이니, 너의 정체를 밝히테다!" 하면서 더 사납게 대들었다. "뭐야?" 스님은 정체가 드러나자 날 살려라하고 도망치는 것이었다. 스님을 놓친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한편, 그 스님은 산밑에까지 내려와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산으로 기어 올랐다. 암자 근처까지온 스님은 날이 저물어 더 걸을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암자에 와서, "스님, 계시옵니까? 지나가던 중이온데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 갈까 합니다."하고 청하니 대사가 나타났다. 대사는 스님을 공손히 안으로 맞아들였다. 조금후 몇마디를 대사가하자 중은 자기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짐작하고 도사를 칼로 찌르려 하자 어느새 보았는지 개가 번개같이 중에게 달려 들었다. 아악! 소리를 지르며 중은 비수를 떨어뜨렸다. "네 죄는 마땅히 목을 베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네목숨을 가엾게 여겨 살려 보낼 터이니 양심이 있거든 네가 하던 짓을 거두고 이곳을 떠나거라!"하고 호령하니 그 중은 벌벌 떨며 비수로 자기의 귀를 잘라 도사 앞에 놓고 그곳을 떠났다. 대사는 이렇게 하여 많은 일본 첩자들을 알아내어 나라의 위험을 막아준 분이었다 한다. 신통리에 있는 심산부 대사의 비석은 비바람에 깎아서 알아볼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암자가 지금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한다. 갈수록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으로 끼어들어 사회를 좀 먹는 간첩들이 이땅에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대사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대사의 힘찬 말씀이 컹전을 울린다. "하나로 뭉쳐라. 그리고 틈을 주지마라!"